

MANAS

Iha Timor-Leste

6월 여름 특집호
발행일자 2013년 6월
발행인 : 라온아띠 9기
동티모르팀

[환경의 날 특집]
청년들과 함께한 350PPM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티모르의 어린이날
LORON LABARIK

GO TO THE
BALI

콩! 당! 콩! 당!

드디어, 중간평가

안녕, 넬슨.

인생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밀착취재> 가족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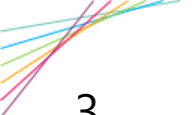
추억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들과 소풍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똥?>

INDEX

- 01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P. 2-20
- 02 [환경의 날 특집] 청년들과 함께 한 350PPM P..21-29
- 03 <밀착취재> 가족이 생겼어요! P. 30-38
- 04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툼?> P. 39-40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어린이 날, 중간평가
2 350PPM	3	4	5 환경의 날	6	7 비자트립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홈스테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안녕, 넬슨	28	29 아이들과 쇼핑
30						

어린이날 행사 Loron-LABARIK MANAS

티모르의 어린이 날인 6월 1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아띠들과 티모르 YMCA 스텝들은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어. 어린이날답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준비하였지. 과자 먹기, 성경퀴즈, 의자게임, 풍선 댄스게임! 동티모르의 국교가 가톨릭이기에 성경퀴즈라는 색다른 게임이 들어갔지.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아이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열심히 굴렸지. 툰, 4개의 그룹으로 나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게임에 몰두하였어.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합산해 등수를 매겼지. 등수에 따른 선물을 모두에게 주었어. 선물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 아, 그리고 때마침 중간평가를 위해 여수에서 오신 김일주 간사님께 티모르 환영의 선물인 타이스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 멀리서부터 달려오신 간사님께 아이들은 예쁘게 율동도 보여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드렸어.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날이지.

은아: 센터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동 시간대에 오긴 처음이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더 정신이 없었던 날.

형규: 센터에 자주 나오던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동안 잘 보지 못했던 아이들까지 많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어린이들의 축제 한마당이었어.

동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나까지 행복해 지는 시간이었어.

현도: 평상시 센터에서 오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하다 보니 계속 미흡한 점들이 나와 준비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행복한 기운이 전해져 즐거운 추억이었어.





중간평가

6월 1일, 우리 티모르 팀도 드디어 중간 평가를 위해 한국에서 김일주 간사님께서 오셨어. 다른 팀들은 대부분 이미 중간 평가를 마친 상황이라 우린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오신다고 하시니 은근 긴장됐어. 그날 저녁, 현지 간사님들과 동티모르 총장님, 김일주 간사님, 양동화 간사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의 중간 보고 PPT발표를 시작했어. 간략하게 지금까지 했던 아띠 클라세와 캠페인들을 소개하고 개개인 마다 느낀 점을 말했어. 우리의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총장님과 여러 간사님들의 코멘트가 이어졌어. 공식적인 중간 평가가 끝나고 김일주 간사님과 한 명, 한 명 면담시간을 가졌어. 간사님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 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도 해주셔서 평가 외에도 힐링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어.

은아 : 중간평가라는 딱딱한 용어에 긴장을 한껏 했지만, 평가보단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 여수서부터 와주신 김일주 간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형규: 중간 평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했던 활동 모습을 깊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웠지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이해해 주셨고, 개인 평가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가 오간 것 같아 마음속 치유와 남은 기간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어.

동윤: 중간평가를 통해 나의 여태까지 티모르에서의 생활들을 한번 더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고 김일주 간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했어.

현도:중간평가를 진행하러 오는 간사님도 우리도 모두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중간평가이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행복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중간평가!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비자트립 승!승!승!!

MANAS

동티모르에서 3개월을 무사히 보낸 라온아띠 9기! 비자연장을 위하여 발리에서 4박5일동안 잠깐의 휴식을 취했어. 동티모르와는 또 다른 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Refresh! 자, 이제 다시 달려보자고!





What did you do? Imi halo saida?

Adeus, Nelson. (안녕, 넬슨.)

MANAS



넬슨의 이야기

Adeus, Nelson. (안녕, 넬슨.)

MANAS

새벽2시... 그저 감기 몸살인줄 알았지만 온몸에 전해지는 고통에 눈을 뜬 시간이다. 악몽같은 새벽시간을 견디고 아침에 만난 팀원들과 동티모르 YMCA의 총장님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말라리아나 Dengue열 같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들었을 때만 해도 사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피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문득 'Dengue열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안되는데 아직 6월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왜 빗겨나가지 않을는지 병원에서 결국 Dengue열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그 순간 느끼게 된 나의 모든 감정이었다. 사실 필리핀 팀에서 귀국한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기도 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팀원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꾸 혼자서 '아 아쉽다.'라는 말을 되뇌이는 나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더욱 힘들었다.



Adeus, Nelson. (안녕, 넬슨.)

MANAS

결국 귀국날이 되었고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안내 멘트를 들으며 '아 내가 한국에 오긴 왔구나'라는 착잡함과 함께 짐을 찾고 한국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동티모르에서 인연을 맺은 티모르의 엄마 아빠에게 전화도 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청년들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페이스북 메세지도 보고 주말이면 보고 싶은 팀원들의 카카오톡도 받으며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다. 사실이 글을 쓰는 순간도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일 만이라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당장 내일이라도 센터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와 현지스텝과 농담도 하고 팀원들이랑 요리도 같이해야 할 것만 같은데 눈을 뜨면 내방 침대라는 사실에 혼자 의미 없는 웃음을 지으며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바쁘게 한국에 적응하는 나를 보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Adeus, Nelson. (안녕, 넬슨.)

MANAS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동티모르에 대한 큰 걱정은 없다. 우리 팀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활동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8월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며 '라온아띠 9기 동티모르 팀 파이팅!'



라온아띠 9기 동티모르 팀의 머리와 입을 맡고 있던 송현도 단원은 6월 25일, 뎅기열을 확진 받고 건강을 조금 회복시킨 후 6월 27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떠난 소풍

MANAS

6월 29일, '추억 만들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소풍을 떠나기로 했어. 라온아띠 9기와 아이들이 함께 밖으로 나간건 이번이 처음이었지. 장소는 크리스토레이 근처 바닷가였어. 크리스토레이는 아띠들이 4월 달에 방문했던 그곳이야.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바다에서 신나게 수영도 했어. 업고 돌리고 던지고..,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불가사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아이들 모두가 해양생물박사가 될 기세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잡기 시작했어. 불가사리, 물고기, 게 등. 아이들은 어디선가 비닐봉지와 상자를 구해오더니 봉지 한 가득 험상궂게 생긴 불가사리들을 채워 넣었어. 바다에 있던 불가사리는 거의 다 잡아 넣은 것 같아. 집에 갈 즈음, 아이들을 따라다니던 아띠들의 몸은 거의 녹초가 되었지. 아이들의 강철 체력을 몸소 느끼는 날이었어.

은아: 밀어주고 당겨주고. 사방팔방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인기쟁이가 된 것 같았지만, 그저 놀이기구일 뿐!

형규: 마르페...그 아이 밖에 기억이 안 난다. 훌렁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그래도 해맑게 웃으며 신나게 놀고 누구 보다 잘 먹고.. 가장 데리고 온 보람을 느낀 귀여운 아이였어.

동윤: 불가사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을 줄이야! 모두들 한아름씩 불가사리를 안고 집에 가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어.

MA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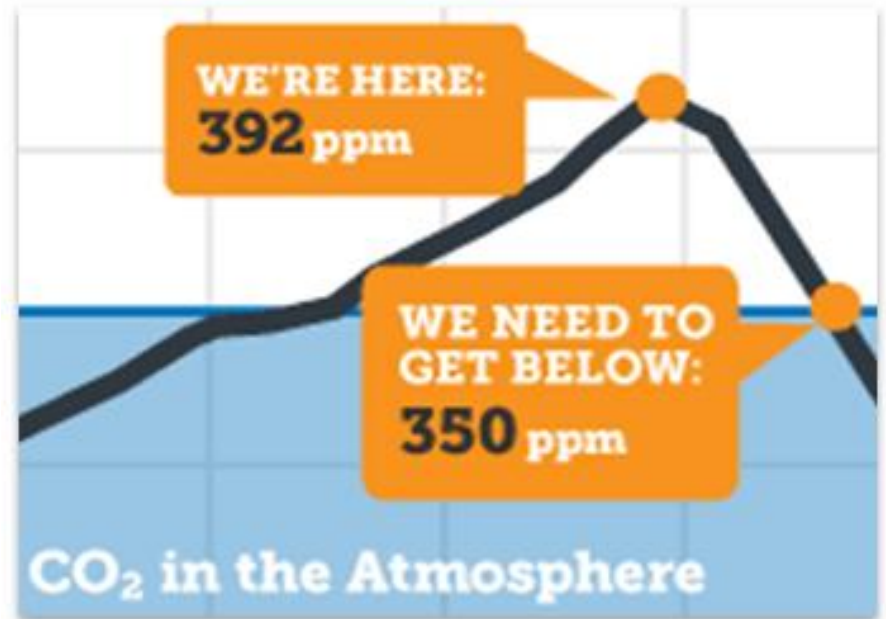


[환경의 날 특집]
청년들과 함께 한 350PPM

350PPM 캠페인이란?

PPM이란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현재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주된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현재 400ppm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

350ppm 캠페인은 이렇게 걱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산화탄소 적정량인 350ppm 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 기후변화방지 프로젝트이다. 350ppm 까지 대기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이며, 남극 · 북극의 빙하가 녹지 않고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이기도 하다.



라온아띠 9기 동티모르팀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일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350PPM 캠페인에 대해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용 전달은 동티모르 YMCA Maun Julio께서 도와주셨다. 현지청년들의 350PPM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편집, 활용하였으며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라온아띠가 함께 10분 짜리 연극을 준비하였다. 4개의 조로 청년들을 나누어 시 짓기, 노래 가사 짓기 등 다양한 시간을 보내었다.



현도 : 사실 아이들과의 센터 생활도 아이 무틴에서의 숙소 생활도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순간! 그 동안 어색하게 지내던 동네 청년들과의 즐거웠던 350ppm 캠페인 덕분에 순식간에 절친이 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비타민 같았던 350ppm 캠페인!

형규 :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처음 하는 거라 준비과정부터 즐겁고 흥미진지 했다. 특히 한국어 수업 학생들이 연극에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은아 : 현지간사님들
 께 설명하기 위해 한
 국에서 보다 더 많이
 350PPM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었던 것 같
 아. 그리고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청년들에
 게 다가간 것 또한 재
 미있고 즐거운 경험
 이었어.

동윤 : 350ppm 캠페
 인을 마을 청년들에
 게도 알릴 수 있었던
 기회이었고 반면에
 우리도 마을 청년들
 에게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어!











<밀착취재> 가족이 생겼어요!

한 집 식구들: 아빠, 엄마,
아티나(여,13), 마티누(남,11)
마테우스(남,9), 마르페(남,3),
+아리카(여,16)

잊지 못할 일주일이었어.
또 다른 가족이 생겼지.
마지막 날, 티모르 엄마께서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며
손을 흔들어 주실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정말 소중한 인연,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어.
티모르를 ‘진짜’ 알게 된 기분
이랄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 내가 샤워할
때면 날 기다려주던 아티나, 끝나
기 3일전부터 가지 말라던 아리카,
손에 먹을 걸 잔뜩 들고도 내 걸
달라며 손 내밀던 막내 마르페,
아침마다 돼지와 닭이 울어 알람
이 따로 필요 없었던 우리집,
보고싶을거야! 정말.





한 집 식구들: 아빠, 엄마, 아조(남,10),
아겔(남,9), 에데(남,7), 리오(남,5),
넬리오(남,3)+ 군다, 난다

사실 홈스테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팀원들과는 달리 나는 홈스테이가 하기 싫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홈스테이를 하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홈스테이라는 색다른 경험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어. 익숙했던 숙소를 떠나 현지인 집에서 함께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지.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5명의 사랑스러운 동생들과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빠, 엄마와 하루하루를 지내며 너무나 행복함을 느꼈어. 미약하지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어 티모르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인 닭볶음탕도 만들어주고 아들뿐인 집안에 엄마의 말벗을 해주고 싶어 항상 저녁까지 서로 대화를 하며 노력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뒤돌아 보면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 같기도 해.

한 집 식구들: 아빠, 가장 일라르디형님, 멘티 형수님, 아테티 형, 아미노 형, 아세니, 아끼나, 내 친동생 아시쿠, 알리따, 알라우, 노피타(여,2), 마리아(여,1).

솔직히 우리 집은 홈스테이 후보로 선정된 걸 알고부터 팀원들 사이에 “저 집만은 피해야 된다” 는 경계 대상이었어. 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우리 집은 대대가족이어서 과연 잠을 잘 자리는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집이었거든. 또, 다른 집들은 아이들이 많은 반면 우리 집은 애기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 우리 활동이 거의 아이들 대상이라 청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긴장했어. 그러나 일주일간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이게 진정한 가족이구나” 라고 느꼈어. 내가 밥을 조금 먹는가 싶으면 어서 더 먹으라고 말하고 여기는 너의 집이니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지. 나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서로 관심을 가져. 정말 외로울 틈이 없는 가족 속에서 가슴 벅찬 일주일간의 삶이었어.





한 집 식구들: 아빠, 엄마,
에피(여,9), 케이(여,4), 타피(남,3),
짜이(남,1) + 피기(남,15), 켈라(여,23)

우리 집은 센터에서 걸어서 10초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팀원들은 모두 가족이 마중
나왔지만 베란다에서 나를 보며 알아서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시는 엄마를 보고 아지우의 도움을 받아 짐
을 들고 혼자 집으로 들어 갔지. 홈스테이 하기 전부
터 많이 들락날락 했던 집이라 긴장되거나 낯설지 않
았어. 같이 사는 동안 케이와 타피는 내가 주는 밥을
제일 맛있게 먹어주고 안겨서 뽀뽀도 많이 해주었어.
에피는 언제나 나의 밥과 잠자리를 챙겨주고 피기는
나에게 장난을 많이 치며 친근하게 대해줬어. 또 우
리 집 귀염둥이 막내는 혼자 일어서는 연습도 하고
나에게 기어와 재롱도 부렸어. 이번 홈스테이를 통해
나에게는 5명의 귀염둥이 동생들이 생겼어. 켈라 언
니는 같은 방에서 자는 덕분에 둘이 시시콜콜한 여자
들끼리의 수다도 떨 수 있었지. 너의 집이니깐 부끄
러워 하지 말고 많이 먹고 잘 자라는 엄마, 아빠의
말이 나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
어. 아! 우리 아빤 경찰이야!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뚝?

다같이 배워볼까요 떼뚱?

MANAS

감사 & 사과 & 대답 (Obrigadu & Deskulpa & Resposta)

Obrigadu(남자)- 감사합니다.

Obrigada(여자)

(남성은 말할 때 오브리가두, 여성은 말할 때 오브리가다라고 구별하지만 현지 지역과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Obrigadu(Obrigada) barak- 정말 감사합니다.

Nada- 천만에요, Deskulpa- 죄송합니다, Lisensa- 실례합니다

Sin- 예/네, Loos- 맞습니다, Lae/laos- 아닙니다, Diak- 좋습니다.

La buat ida- 괜찮습니다, Seidauk- 아직입니다.

*Manas : 뜨거운, 더운

(*본 잡지의 제목인 MANAS는 '우리 생애의 가장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담아내었다는 의미로, 뜨겁게 5달을 살고 가겠다는 포부 또한 담겨 있습니다.)